

일자리 · 국정자문위 안, 국무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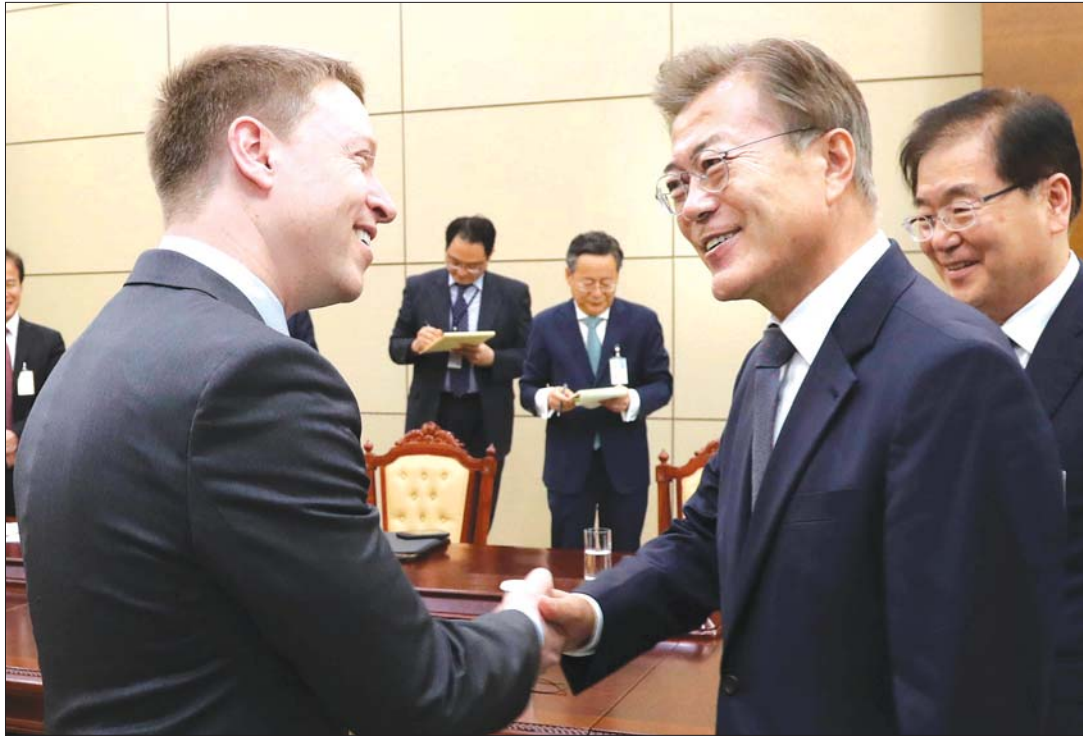
유일호 부총리 국무회의 주제 文 '1호 업무지시' 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한 '일자리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이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임기 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0명의 장관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일자리 관련 연구기관과 노조 및 회사측 대표들도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매튜 포티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 수립을 담당한다. 자문위를 통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

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한다는 게 청와대의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50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규모는 당연직 위원들과 자문위원까지 더해 30~4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靑 “朴정부 컴퓨터에 남은 것 없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자료 인계 논란이 여당에서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 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남겨받은 자료가 지극히 부실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료들을 확인해 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고 자료도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 문서는 있을 것 같긴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라며 “법적인 것은 관련 수석이 확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남긴 건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며 “전임 정부에서 새 정부에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는 “관례적으로 후임 정부의 안착을 위해서 이 정도 인수인계는 해야 한다는 도덕적·관습적 측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기본적인 인수인계조차 안한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우원식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인 김근태계이며, 당내에서는 범주류로 분류된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선거인 120명 중 1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1표를 획득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우 원내대표와 경쟁했던 홍영표 의원은 54표를 얻어 7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무효표는 없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고, 그래서 손 잡고 우리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성공을 위해 나아가려는 명령으로 알고, 홍 후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대표와 꾸밈없이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선출

이용호 의원이 16일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동철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서 결선투표에서 39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을 득표해 대선 이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당내 정책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 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고 정치적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먼저 국민의당을 찾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년간의 경향신문 기자 경력, 국무총리실 공보 및 정책비서관 등의 경력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1년여 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인재용 기자

“5.9 대선, 국민의 촛불로 만든 명예혁명”

김승환 교육감, “교육개혁 핵심 유·초·중·고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철저 대비를”

“김승환 교육감은 15일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교체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촛불로 촉발된 하나의 명예혁명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역사에도 명예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일민 김 교육감은 “촛불을 든 국민 뿐 아니라 촛불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대통령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명예혁명을 일궈냈다. 이 분들도 같은 국민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세워나갈건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즐기치게 요구해왔던 개혁대상이 있었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

만 그걸로 끝이었다. 지방교육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지시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쳐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진단이다.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승승과 목이 바뀌고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는 등의 폐해도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현재 정부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총론, 각론 거의 갖춰놓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 중에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때 교원의 법률상 신분이 결립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공립교원은 법률상 국가공무원으로 돼있는데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게 되면 교원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금 국민이 명예혁명을 일으켰는데 교육계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마치 기득권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서는 국민, 아이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계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해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새 정부 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교육청, 그리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유지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

16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동철(4선·광주 광산갑) 의원이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과반수인 20표 이상을 얻어 추가 개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러닝메이트인 이용호 정책위의장 후보도 이날부터 임기를 함께 시작하게 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40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며 “소통구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